

용납 안 되던 ‘그 사람’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



정철진 |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내가 정신분석이라는 존재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때로 한 여성잡지의 ‘섹스에 대한 Q&A’ 코너를 통해서였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보낸 사연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대학 때 친구들 3명과 함께 캠핑을 갔었는데 그 곳에서 우린 놀러온 여학생들과 함께 하게 됐지요. 그날 밤 우리 4명은 그중에서 몹시 술에 취해 있던 한 여성을 우리의 텐트로 끌고 들어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서울로 돌아와 당시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섹스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당시 우리에게 강간당하던 여성의 괴로워하는 표정과 비명소리가 떠올라 미칠 지경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요. 한마디로 전 성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했던 다른 녀석들은 모두 아무렇지도 않아요.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왜 저만 찢값을 치루는 걸까요.”

참으로 묘하다. 그냥 잊어버리면 될 텐데. 그리고 보니 인간의 기억은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근데 왜 다른 녀석들은 괜찮지?



이것이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의 인간드라마’ 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대학 때 '천재 논쟁' 을 한 적이 있었다. 어느 선배가 천재라느니, 실은 내가 천재인데 숨기고 있었다느니 조금은 쓸데없는, 술자리를 위한 논쟁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나름의 천재증명법을 만들어냈다. 바로 요절夭折과 정신병. 마흔을 넘길 때까지 살아있다면 일단 스스로를 천재의 반열에서 제외시키고, 만약 마흔을 넘기더라도 혹시 자신만의 비밀스런 정신병을 갖고 있다면 아직 천재의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꽤 쓸만한 증명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천재는 모두 요절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환자들이었다. 예외가 없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성적억압을 쉬지 않는 학문의 탐구로 발산했으며, 작곡가 말러는 평생 강박신경증에 시달렸다. 말러는 강박증을 이겨내기 위해 오선지에 음표를 써내려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무서워했던 기억이 한 여인에 대한 집착으로 표출된 릴케, 《수레바퀴 밑에서》에서 학교에 대해, 아이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은근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던 헤르만 헤세는 실제 스스로가 심각한 우울성장애를 동반한 경계성 인격장애자였다.

맞아 흔히들 너무 똑똑해서 돌아버렸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럼 누가 이들을 치료해주지? 천재의 병이라... 역시 천재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의 인간드라마》에 대한 나의 이해력이 점점 성숙해질 무렵, 나는 프로이트와 융과 노이만, 에릭슨과 라캉을 만났다. 그들 역시 엄청난 천재들이었고, 스스로가 아픔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다.



신간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의 인간드라마》는 모처럼 밤을 새워가며, 밤참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가며 읽었던 책이다.

책의 강점은 '인물' 을 통해 하나씩 답해나간다는 것. 일단 90여 명 인물의 개인사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한권의 매뉴얼처럼 간략히 서술하고, 이어 그의 이론을 통시적, 공시적 입장에서 설명해간다.

프로이트, 융, 라캉, 에릭슨 등 심리학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 도스토예프스키, 레오나르도 다빈치, 구스타프 말러, 히틀러 등 소개되는 인물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다.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초자아, 반복강박, 전이와 역전이 등 (어떤 사람에게는) 생전 들도 보도 못한 용어들도 상당히 쉽게 기술된다.

"어머니를 때리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K라는 딸은 절대로 그런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K는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선택한다.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 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그런 녀석이다. 그러나 K 본인은 운이 없어서, 팔자가 그러려니 하며 그냥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반복강박' 이다."



석 달 전 출판면 기사를 위해 선·후배와 함께 책을 고르는 도중 나는 이 책을 첫손에 꼽았다. 일단 제목이 너무나 맘에 들었다. 옛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 조금 아는 척을 했다.

"(…)영웅신화에서는 영웅이 괴물을 퇴치하고 여성을 손에 넣는다는 뻘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아버지 살해',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융은 이 신화神話를 '그레이트 마더' 와 영웅의 싸움이라는 의미로 해석, 자아의식이 무의식의 힘에 대항하면서 자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풀었습니다. 음, 뒤에 융 학파인 노이만도 '어머니 살해' 를 강조했는데요, 융은 '우로보로스ouroboros'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좀 오버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후배가 웃으며 한마디 한다.

"정 선배,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어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구요. 왜요? 그레이트 마더는 또 누구예요?"

자숙아, 너는 절대로 모른다. 장국영이 왜 자살을 했겠냐? 리버 피닉스는 뭐가 그리 아쉬웠겠냐? 김현식은 왜 그렇게 미친듯이 술을 마셨는가 말이다.

누구에겐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저 의식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둔 비밀스런 아픔 때문에 순간을 버거워하고 있다.



아는 척하기도 좋지만(분명 책은 여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단순히 그 때문만은 아니다. 세기의 천재들이 앓았던 다양한 정신질환과 그 속에 내재된 드라마틱한 인간사를 접하는 것은 평소 도대체가 용납이 안됐던 '그 사람' 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사람' 은 물론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 ☞

